

2019년 12월 26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나스닥, 낙관적인 무역협상 기대 속 상승 트럼프, “시진핑과 서명식이 추가 될 것”

### 미 증시 변화 요인: 미-중 무역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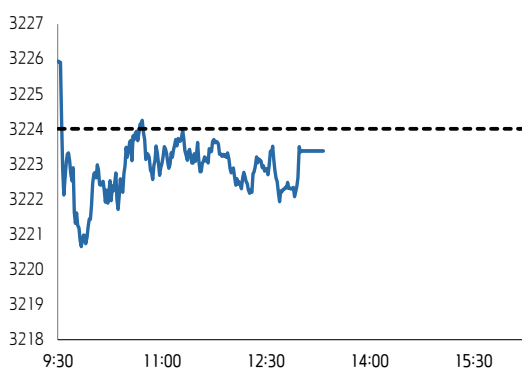
미 증시는 25 일 휴장인 가운데 24 일에는 그동안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유입되며 매물 출회. 장 초반 지속적인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갔으나 곧바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거래량도 급감하는 등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혼조 마감(다우 -0.13%, 나스닥 +0.08%, S&P500 -0.02%, 러셀 2000 +0.23%)

이번 주 연말을 맞아 시장은 ①미-중 무역협상 ②밸류에이션 부담 등을 기반으로 변화. 미-중 무역협상 관련 지난 주 주말 트럼프가 시진핑 주식과 통화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옴. 여기에 중국 정부가 850 개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 월 1 일부터 줄인다고 발표한 점도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을 줌.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24 일 중국과 1 차 무역협상이 마무리 되면 시진핑 중국 주식과 서명식이 추가 될 것이며 현재는 협정문 번역(작성) 중이라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 요인.

한편,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25 일 미국과 긴밀한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발표. 특히 매일 양측의 경제 및 무역팀이 이번 거래의 서명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 구체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국 정부는 지난 주 공식 서명 후 세부 사항이 공개 될 것이라고 발표해 불확실성 완화 가능성을 높임.

이런 가운데 S&P500 기준 12 개월 Fwd PER 이 18.0 배를 기록해 5 년평균(16.7 배)는 물론 10 년 평균(14.9 배)을 훌쩍 뛰어 넘어서는 등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이어감. 특히 2018 년 1 월 미국의 대 중국 관세율이 평균 8.0% 수준이었으나, 1 차 협상 이후에도 2,500 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관세가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 20.9%(기존 21.1%)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실적 부담이 이어질 듯. 이를 감안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유지. 다만, 1 월 4 분기 실적이 본격적인 발표 되기 전까지는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무역협상 낙관론을 기반으로 조정 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24일 기준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변동률(%)	종가	D-1
KOSPI	2,190.08	-0.62	홍콩항행	27,864.21	-0.15
KOSDAQ	638.91	-1.34	영국	7,632.24	+0.11
DOW	28,515.45	-0.13	독일	13,300.98	-0.13
NASDAQ	8,952.88	+0.08	프랑스	6,029.55	+0.00
S&P 500	3,223.38	-0.02	스페인	9,661.80	+0.02
상하이종합	2,981.88	-0.03	그리스	912.52	+2.29
일본	23,782.87	-0.20	이탈리아	23,898.42	-0.4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일본, 중국 제외 24일 기준, 독일 23일 기준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반도체, 5G 관련주 강세

AMD(+2.38%)는 RBC가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를 이유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50달러→53달러) 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브로드컴(+0.30%), 마이크론(+0.04%), 스카이웍(+1.77%), 퀄컴(+0.36%) 등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더 오래 사용함에 따라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 3년 동안 감소했으나, 내년에는 5G폰을 기반으로 재차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강세를 보였다.

한편, 성탄절을 맞아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증가 기대가 높아지자 월마트(+0.40%), 홈디포(+0.67%) 등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우버(+0.36%)는 공동 창업자 중 하나인 트레비스가 사임한다고 발표하자 상승 했다. 이는 현재 우버 경영진에게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테슬라(+1.44%)는 장 초반 모건스탠리가 펀더멘탈 보다 높은 주가 수준이 부담스럽다며 기존의 250달러(현재 425달러) 목표주가를 유지한다고 발표하자 장 초반 1.5% 넘게 하락하기도 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08%	대형 가치주 ETF(IVE)	-0.07%
에너지섹터 ETF(OIH)	-0.15%	중형 가치주 ETF(IWS)	+0.06%
소매업체 ETF(XRT)	+0.37%	소형 가치주 ETF(IWN)	+0.12%
금융섹터 ETF(XLF)	+0.23%	대형 성장주 ETF(VUG)	+0.05%
기술섹터 ETF(XLK)	+0.03%	중형 성장주 ETF(IWP)	+0.1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7%	소형 성장주 ETF(IWO)	+0.26%
인터넷업체 ETF(FDN)	-0.11%	배당주 ETF(DVY)	-0.11%
리츠업체 ETF(XLRE)	+0.1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4%
주택건설업체 ETF(XHB)	+0.6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2%
바이오섹터 ETF(IBB)	+0.47%	미국 국채 ETF(IEF)	+0.17%
헬스케어 ETF(XLV)	-0.13%	하이일드 ETF(JNK)	+0.08%
곡물 ETF(DBA)	+0.49%	물가연동채 ETF(TIP)	+0.12%
반도체 ETF(SMH)	+0.20%	Long/short ETF(BTAL)	+0.1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24일 기준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7.06	-0.05%	+2.14%	+4.15%
소재	383.91	+0.07%	+1.02%	+2.58%
산업재	689.99	-0.34%	+0.66%	-0.24%
경기소비재	977.43	+0.13%	+0.47%	+2.61%
필수소비재	646.51	-0.04%	+0.54%	+2.77%
헬스케어	1,193.14	-0.10%	+1.52%	+3.93%
금융	509.79	+0.10%	-0.46%	+2.22%
IT	1,602.48	+0.04%	+1.56%	+4.17%
커뮤니케이션	181.94	-0.13%	+1.00%	+2.72%
유틸리티	325.36	+0.10%	+0.27%	+2.54%
부동산	236.99	+0.17%	+2.70%	+0.7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24일 기준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6% MSCI 신흥 지수 ETF 는 0.22%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이 569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0.40pt 상승한 290.1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0.8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1 차 무역협상과 관련 트럼프가 시진핑과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 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실질 금리와 금융비용 인하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준율 인하를 비롯한 중국의 온건한 통화정책 기대가 높아진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특히 전일 한국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중국 증시에서 상해 종합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으나, 전자기기, 전자정보, 5G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심천 종합은 상승세를 이어간 점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MD(+2.38%)에 대해 RBC 가 2020 년까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마진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50 달러→53 달러) 했다. 더불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1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힘입어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도 한국 증시 투자심리 개선 기대를 높인다.

이런 가운데 오늘까지 2019 년 배당을 받기 위해 매수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라는 점도 관련 매수세 유입 기대를 높인다. 한편,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져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유가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 외국인의 수급 개선 가능성이 있어 오늘 한국 증시 강세 기대를 높인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

12 월 리치몬드 연은 지수는 전월(-1) 보다 둔화된 -5 로 발표되었다. 지속적인 기준선을 하회해 제조업 활동 둔화가 이어졌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신규수주(-3→-13)가 큰 폭으로 둔화된 가운데 출하지수(-2→-6) 등은 부진했다. 다만 고용지수(5→7)는 개선 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 유가 61 달러 상회

국제유가는 미-중 1 차 무역협상 완료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했다.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감산 효과가 효과적이고 결과가 기대만큼 좋다고 주장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물론 지난 주말 내년 3 월 opec 정례회담에서 감산을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날은 영향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달러화는 성탄절을 앞두고 급감한 거래량 속 리치몬드 연은 지표 부진 여파로 여타 환율에 소폭 약세를 보였다. 대체로 시장은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특별한 변화 요인이 제한된 가운데 5 년물 국채입찰 호조로 채권 수요가 높아지자 하락했다. 5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은 12 개월 평균(2.37 배)를 상회한 2.49 배를 기록했으며, 간접입찰 또한 12 개월 평균(59.1%)를 상회한 62.4%를 기록했다.

금은 위험선호 심리가 높아져 있으나, 연말을 앞두고 일부 되돌림 현상이 발생하며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움직임 속에 무역협상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6%, 철근은 0.77%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24 일)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1.11	+0.97	+0.39	Dollar Index	97.557	-0.10	+0.16
브렌트유	67.20	+1.22	+1.66	EUR/USD	1.1094	+0.05	-0.18
금	1,504.80	+1.08	+1.63	USD/JPY	109.36	-0.03	-0.17
은	17,853	+2.02	+4.57	GBP/USD	1.2961	+0.13	-0.89
알루미늄	1,814.00	+0.55	+2.83	USD/CHF	0.9805	+0.02	+0.01
전기동	6,215.00	+0.40	+0.24	AUD/USD	0.692	-0.03	+0.98
아연	2,274.00	-0.74	-0.33	USD/CAD	1.3157	-0.06	+0.32
옥수수	387.50	-0.32	-0.64	USD/BRL	4.073	-0.27	+0.13
밀	541.00	+0.28	-2.74	USD/CNH	6.9985	-0.08	-0.06
대두	944.75	+0.27	+0.43	USD/KRW	1163.90	-0.03	-0.20
커피	129.40	+3.27	-3.22	USD/KRW NDF 1M	1160.80	-0.09	-0.39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24 일)	1.900	-2.98	+1.95	스페인(24 일)	0.428	-0.10	+3.80
한국(24 일)	1.632	-1.00	+3.20	포르투갈(24 일)	0.400	-0.10	+4.90
일본	-0.019	-3.10	-0.70	그리스(24 일)	1.415	-1.30	+8.00
독일(23 일)	-0.242	+1.00	+3.50	이탈리아(24 일)	1.425	0.00	+15.40